여성농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5월 3~6일 농촌 곳곳

여성농민회는 여성농민들 스스로가 희망찾기를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마을, 면, 군에서 여성농민들의 작은 힘을 모아 이 땅의 식량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당당하게 출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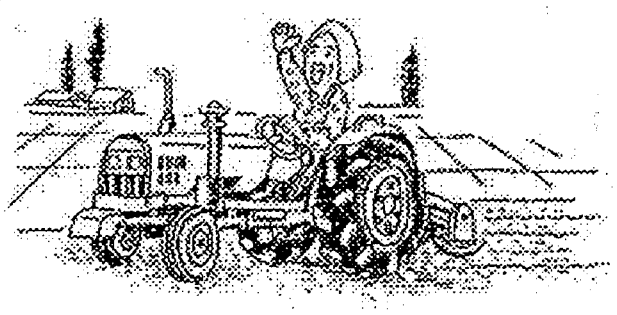
1970년대 말부터 여성농민들은 마을에서부터 농산물 공동판매 등의 협동활동을 하였고, 부녀회의 민주화, 농민의 권익 실현 등을 위한 교육활동을 벌여나갔습니다. 1980년대 초 정부가 외국농산물과 축산물 등을 수입해와서 고추값이 폭락하고, 소값이 폭락했을 때도 여성농민들은 가장 앞에 서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라고,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을 바꾸라고 싸웠습니다.

'여자들이 나서면 되는게 없다.'는 비난을 삼키며, 내 논밭의 곡식이 때를 놓쳐 쓰러져가는 것을 아픈 마음으로 보아가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뛰어다녔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동안 어렵게만 여겼던 농업문제와 여성농민 문제를 공부하고, 여성농민 스스로가 강사가 되어서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 제주도에까지 9개도에 여성농민회연합을 만들고, 1989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농업·농민문제의 해결과 이 땅 농민의 절반인 여성농민들의 권익을 위해 마을에서부터 면, 군, 도, 전국에 이르기까지 여성농민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일을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쌀수입저지 등 외국산농산물 수입개방 반대를 위한 도, 전국여성농민대회
쌀 전량수매와 학교급식 완전실현을 위한 전국여성농민대회
여성농민 복지실현을 위한 전국여성농민대회와 각종 정책토론회
농가부채 해결과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직접지불제 확대실시 전국여성농민대회와 토론회
농번기 탁아소와 어린이집 운영, 도시와 농촌어린이 교류사업
농협조합원 가입운동과 완전복수조합원제 등 농협법 개정
여성농민 전문인력화와 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활동
여성농민 후계자 선정시 가산점 부여
농림부 내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와 여성농민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
농가도우미제도의 실시 등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출발한 지 10년이 넘는 동안 여성농민회는 여성농민들의 희망찾기를 위해 다양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성농민의 눈물과 한숨이 있는 곳에서 여성농민들의 희망찾기를 위해 함께 할 것입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성농민운동의 방향과 전망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와 앞으로 있을 한미, 한일자유무역협정과 WTO재협상으로 대표되는 개방농정 철폐투쟁

농사일이라는 것이 시간 되면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런 활동이 아닙니다. 또한 시기를 놓치면 한해 농사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간을 다투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농촌사회의 보수성으로 인해 집안 일은 혼자서 책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밥이 다 되도록 해도 끝이 없는 게 집안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해 농사 짓고 나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값이 좀 좋을라치면 가격안정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입을 해서 가격은 폭락하고, 밭뙈기채 갈아엎는 일이 비일비재로 생깁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제값받는 농사를 짓는다면 한해의 고달픔이나, 농부증은 그런대로 버틸만 할 것인데,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늘어가는 것은 빚뿐이니, 그리고 농사규모와 빚의 규모는 비례하고 점점 증가만 하고 있으니…

이러한 이유는 무분별한 수입개방과 식량자급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도 없이 기형적인 세계화 추세를 들먹이며 진행되는 자유무역협정과 WTO의 협상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농민들은 부채로 인해 파산하고 심지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농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김대중정권의 개방농정에 대한 정책전환을 시켜내지 못하면 농업·농민의 파탄을 막아낼 수 없으며,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민족농업을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농가소득보장

여성농민 노동의 중심이 되는 작물은 고추, 양파, 마늘, 참깨, 콩, 감자, 옥수수를 비롯한 시설채소, 과수, 화훼 등 집약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밭작물로 대표됩니다. 이러한 작물은 식량 대체작목으로 기후변화에 민감하며, 가격의 높낮이가 매우 심한 작물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처럼 폭설로 피해를 본 것도 이에 해당하는 품목들입니다.

UR협상과정에서 선진국들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농가소득지지를 위한 직접지불제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확대 실시에 대한 필요성 정도를 인정하여 올해부터 쌀농사에 대한 직불제가 ha당 25만원의 직접지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과 직접지불금이 미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전여농에서는 쌀은 물론이고 밭작물에 대한 다양한 직접지불제의 도입을 통해 우리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의 유지·발전은 국민의 안정적 식량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환경보호, 국토보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직접지불제도는 쌀에만 도입할 수 있는 농업지원 제도는 아니며 모든 작물에도 도입할 수 있는 농업지원제도입니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작물은 수입 농산물에 의해 그 생존기반을 잃어가고 있으며, 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상업적인 소수 몇 개 품목으로 작목이 집중되어 주기적인 가격폭락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기는커녕 생산비도 얻지 못합니다.

밭작물에 대한 농산물 가격보장은 여성농민의 노동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1.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우리 농업 직접 피해액만 2조1254억원

ㅇ포도(하우스 포도만 연간 300억원 피해 예상) :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칠레산 포도의 국내 점유율은 95%나 됩니다. 이런 칠레 포도가 무관세로 수입된다면 칠레 포도 성출하기와 시기가 비슷한 국내 시설포도농가의 직접 피해액만 연간 3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 등 전체 포도농가의 피해규모는 엄청날 것입니다.

ㅇ사과(연간 940억원 피해 예상) : 수출규모 세계 3위 수준인 칠레의 사과 출하기는 3~7월로 우리나라가 칠레산 사과를 수입할 경우 국내 사과 가격이 칠레산보다 높아 사과 농가의 재배포기가 이어지고 전체 생산량도 8.6% 가량 감소될 것이며, 직접 피해액은 연간 940억원에 달합니다.

ㅇ배(연간 1159억원 피해 예상) : 품질이 우수한 칠레산 배가 무관세로 수입된다면 국내산 배값은 평균 20.6% 정도 하락될 것이며, 생산량도 5.5% 이상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배농가의 직접 피해액은 1159억원에 달합니다.

ㅇ기타 과실(연간 5,355억원 피해 예상) : 농협의 조사에 따르면 관세철폐시 키위 300억원, 단감 490억원, 자두 565억원, 복숭아 1,000억원, 감귤 약 3,000억원 가량의 농가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는 등 상상을 초월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ㅇ축산물(연간 1조3,500억원 피해 예상) : 축산농가들의 피해도 큽니다. 자유무역협정의 타결로 칠레산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면 칠레산 축산물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 쇠고기는 29.2%, 돼지고기는 22.2%, 닭고기는 19.7%의 가격 하락이 우려됩니다. 이처럼 가격이 저렴한 칠레산 축산물이 국내시장을 잠식, 국산육을 대체하면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각각 6,000억원, 닭고기는 1,500억원 가량의 직접 피해가 날 것입니다.

2.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농업은 어떻게 되는가?

쏟아지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우리의 농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미 94년 UR 협상이후 과일, 축산물 등 어느 품목 하나 회생 기미 없이 침몰되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산 오렌지의 수입으로 과채류 전반이 대폭락한 사례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여기에다 IMF까지 맞으면서 생산비 또한 크게 오른 반면 국내 소비는 위축되어 가격 폭락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WTO 뉴라운드 시작을 앞둔 농업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기만 합니다.

무차별 수입 ➡ 가격하락 ➡ 소수품목집중 ➡ 과잉생산 ➡ 가격폭락 ➡
영농포기, 농업파탄, 농촌공동체 붕괴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수입농산물 가격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소수품목으로 작목선택이 집중돼 과잉생산을 초래, 예외없이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계속 되고 있는 농민들의 자살과 야반도주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격폭락으로 부채를 갚을 길 없는 농민들은 또다시 목숨을 끊고 파산하게 되는 농촌은 그야말로 죽음의 땅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결국 한국 농업의 파탄을 야기하게 될 것이며, 세계 다국적 곡물기업의 횡포 앞에 7천만 겨레의 생존마저 내놓는 거대한 괴물로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을 막기 위해 누구나 다 나서야 합니다. 여성농민들도 적극 나서서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반대 투쟁을 벌여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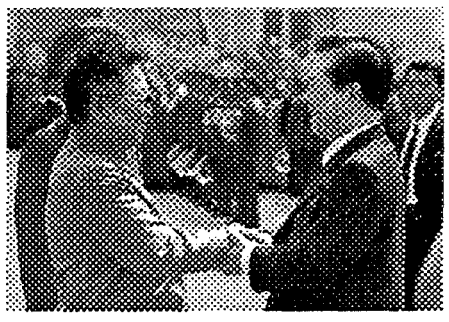
금강산 갑시다~?!!

남과 북 농민대표단은 6.15 공동선언을 적극지지하고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서로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오는 6월 15일 평양에서 〔남북농민 통일토론회〕를 개최할 것과 6월 25일 민족의 명절인 단오날을 맞이하여 금강산에서 〔남북농민 통일단오명절놀이〕를 개최하고 씨름, 줄다리기 등 민속놀이를 통하여 남과 북 농민들이 6.15 공동선언 실현과 통일을 염원하는 한마당을 가질 것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회의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윤금순 부회장님이 금강산에 4월 29일에서 5월 1일까지의 일정으로 다녀오실 예정입니다. (지금은 다녀오셨겠죠?)

이북에는 여성농민단체가 없고 농민맹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우선 전여농이라는 여성농민단체가 이남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고, 전여농이 이남사회에서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6.25 통일 단오 대동놀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북의 여성농민들과 앞으로 어떻게 교류해야할 것인지도 조금은 이야기가 될 듯 합니다.

단오는 농촌에서 농번기를 지나 잠깐의 쉼을 내어 산좋고 물좋은 곳에서 심신을 다지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래의 명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세의 문화와 농사일의 변화로 인하여 거의 사라지고 없는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계기로 남북의 농민이 만나 통일의 대역사적 대동놀이를 통해 통일로 한 걸음 나아가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02-529-6349
강원 033-332-1518, 033-342-3156
경기 031-883-0678, 031-691-6131
충북 043-833-9442, 043-536-6669
충남 041-857-7361
전북 063-534-4803, 063-652-1955, 063-253-1129
전남 061-533-3933, 061-337-3625 경북 054-822-2187, 054-832-3945
경남 055-672-2535, 055-758-2510 제주 064-794-4624, 064-755-6367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각 도여농, 군여농으로 연락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은 함께 상의해보도록 합시다.**